

‘노트북 집주인’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한 번 가보지도 않은 지역의 주택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세를 놓는 ‘노트북 집주인’이 늘고 있다.

지난 30일 ‘아시아경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노트북 집주인들은 임대 수익이 목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소유를 주식이나 채권 투자와 함께 핵심 투자수단으로 본다.

노트북 집주인 증가는 기술발전으로 가능했다. WSJ는 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이 판매 가격, 현지 범죄율·학교 현황 등 주택 구매와 관련한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부동산 업체는 주택 매수 희망자와 금융업체, 현지 부동산 관리인을 연결해 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컨설턴트 존 번스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며 “이는 ‘게임 체인저’ (시장 판도를 바꿔 놓는 역할)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어토직에 따르면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가 전체 단독주택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월 17%에서 올 2월 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WSJ에 따르면 노트북 집주인은 대개 대도시권의 IT 고소득 전문직들로, 이들이 주로 투자하는 지역은 중저소득 임차인들이 많은 남부지역 대도시였다. 부동산 정보업체 ‘애덤 데이터 솔루션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주택 매매에서 다른 주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4.24%), 조지아주 애틀랜타(5.26%), 테네시주 멤피스(8.61%)로, 남부지역 대도시가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사진=shutterstock

미, 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막으려 ‘에너지 무기’ 개발 중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 에너지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CNN’에 따르면 길테이 미 해군 참모총장은 전날 미국 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행사에서 이들 국가의 극초음속 무기가 중대 우려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길테이 총장은 극초음속 무기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지향성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군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향성 에너지 체계는 에너지를 집중해 만들어진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로 표적의 전자장치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2시간 만에 타격한다. 방어용 미사일보다 빠른 데다가 기존 탄도미사일처럼 경로 예상도 쉽지 않아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난제로 평가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사용했고 중국은 작년에 극초음속 활강체를 시험해 미국의 안보 우려를 자극했다.

길테이 총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곧 극초음속 미사



▲미군 구축함 USS Dewey 호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 시스템(LaWS, 사진=미 해군)

일을 활용할 것”이라며 “수비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위협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군은 에너지 방어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라 구축함 프레블에 방산업체 레이시언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헬리오스’(HELIOS)를 설치했다. 미국은 여러 다른 체계의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일부는 시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실전배치를 향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중간선거 집권당 패배 징크스 깨질까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BC 방송은 전날 이런 요인으로 인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에는 이런 징크스가 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에 대한 반발과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꼽혔던 유가의 하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당층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기우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달 실시했던 NBC 여론조사에서 무당

층은 약 25%를 차지했는데,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40%)이 공화당(37%)보다 3%포인트 앞섰다. 이들은 지난 1월과 3월, 5월의 같은 조사에서는 39% 대 33%로 공화당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요인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다. 여전히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40%를 밑돌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갤럽의 조사에서는 7월 38%에서 이달 44%로 급등했다. 이는 갤럽 조사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NBC는 이런 기류에도 경제와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높은 불만은 여전히 민주당에 불리한 요인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일부 희망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날말퍼즐 정답

1 출	2 하	3 나	4 지		
	5 자	6 격	7 루	8 방	9 학
		10 세			11 부
12 등		13 지	14 탕	15 스	16 모
17 장	18 난	19 감		20 소	21 포
	22 병	23 장	24 기	25 러	26 기
		27 승	28 전	29 고	30 동
					31 네

1436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1			9		4		2	
	2	7						4
8					3		5	
		5		7				3
		6			2		7	
3				9			4	
	9		3				6	
		1			5			9
	3			8		7		